

시연施連칼럼

저출산, 위기의 승조정신



권오신 칼럼니스트, 작운공파회장

저출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출산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럽에서도 한국 같은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추락했는데 지난해 4/4분기에는 0.65명이라는 소리가 나올법하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낮은 출산율이다.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었던 1970년의 합계출산율 4.53명 시대를 지나 1996년 1.76명, 2000년 1.18명으로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인구 위기설이 등장했다. IMF 사태가 위기를 더 키웠다. 이대로 가면 25년 후엔 1인 가구(家口)가 40%대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부터는 굳이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등장했으며(50.3%) 자녀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여성이 강했다. 2015년부터 여성 고용율이 50%를 넘어서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안동권씨좌운공파세보(安東權氏左尹公派司正公世譜) 편찬(編纂)과정에서 나타난 저출산 현실은 더 심각하게 다가왔다. 딸 한둘만 가진 집일수록 족보(族譜)의 무용론(無用論)이 강했고 딸만 가진 집역시 생각보다 많았다.

조선(朝鮮)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성(男性) 위주의 대를 잇는 가족 풍속도(風俗圖)는 느리게가 아니라 급행(急行) 열차속도 수준으로 무너져 족보(族譜) 무용론이 자연스럽게 등장해서 수단에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건너 일제강점기에도 유지됐던 양자 제도 역시 자식이 하나둘이나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성 이후에 유행했던 4대 봉제사, 제향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제사는 당대만 받드는 시대로 변천되는 과정을 혹독하게 볼 것 같다.

승조정신을 지키려면 대가 이어져야 하니 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태를 결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유럽의 인구(人口) 증가 성공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자.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4명으로 우리와 비슷했지만 그 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다 지금은 1.6명으로 회복, 저출산을 극복 성공 국가이다.

스웨덴은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는 죄우가 없고 남성이 더 적극적이다. 스웨덴은 일에 대한 열망도 살려주고 "싱글 맘"이 아이 키우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특히 야간 돌봄 시설을 10년 전부터 확대

시행해서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작은 센터에도 돌봄 직원이 6명이나 됐다.

1995년부터 아빠의 육아 휴직 할당제가 법적 의무가 돼 부부가 480일을 쓰도록 했다. 사실 남성 육아 휴직은 우리나라가 1년을 사용, 가장 길지만 문제는 마음 놓고 쓰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아이가 없는 나라로 오명을 뒤집어썼던 독일의 경우도 미혼모(未婚母)의 사회적(社會的) 위치를 부부(夫婦)들과 평등(平等)하게 만들어주는 등 불이익(不利益)이 없도록 했다.

헝가리 경우는 아이를 가지면 대출(貸出) 조건부터 대폭 늘려준다. 지난 10년간의 출산율 1.24명에서 1.58명으로 늘린 헝가리는 아이를 갖는데 정부 지원정책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한다.

출산(出生) 어린이가 늘수록 대출 빚을 탕감해 줬다. "아이만 낳아라." 그 후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정책(政策)이 독일 스웨덴 헝가리 핀란드 등 유럽에 골고루 퍼졌다.

유럽 비혼 출산율은 엄청 높다.(40% 추정) 혼인(婚姻)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중심(中心)이 되는 사회 현상이다. 가부장적(家父長的) 관습이 깊이 뿌리 내린 우리 사회의 관습(慣習)상 무척 낯설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이 유럽에선 뚜렷하게 자리 잡는 추세다. 가족(家族) 형태도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우리의 경우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관습에서 비혼을 받아 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가족이 사라지면 대는 끊기고 위선(爲先)도 할 수 없다. 일본처럼 외국인(外國人) 가사도우미 임금을 차등 보상해서라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다.

요즘 세계(世界)에서 가장 신나는 뉴스를 뿌리고 다니는 남자(男子)는 "부영그룹 이준근(83) 회장"이다. 그의 셈법대로라면 현재의 출산율 25만 명에서 배로 늘이면 50만 명이다. 부영처럼 1억 원씩을 주면 50조다. 지금의 우리나라 예산 규모라면 못할 것도 없다. 어느 정치인(政治人)의 말처럼 가는 게 가장 실효적(實效的) 방법인데 아이러니일까. 굳이 지적하자면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 형태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남아 중심으로 승조(崇祖) 정신이 이어지고 지켜진다는 고정관념(固定觀念)을 뒤집어 시점이 느리게나마 다가서고 있다. 이 시대(時代)의 고통(苦痛)을 받아들일 준비(準備)를 하자는 뜻이다.

지금의 향교(鄕校), 서원(書院), 원사당, 불천위 묘 등에서 봉행하는 춘추향이나 가정마다 받드는 제향을 유지하려면 전국 유림(儒林)들이 성리학(性理學)의 정신을 깔고 저출산의 위기를 끊는데 힘을 모을 절실한 시기다.

강한 가족(家族)이 없으면 부강(富強)한 나라도, 승조도 없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7>



권현현 편집위원장

<경모재유고>는 권길(權吉, 1712~1774) 공의 시문집으로 2권 1책이다. 공은 자(字) 정보(正甫), 호(號) 경모(敬慕)이며, 안동권씨 시조후 28세(世)로 북아공과이다. 부친은 권중항(權重恒, 1688~1738)이고, 모친은 선산김씨(善山金氏, 1689~1731)이다.

공은 향시(鄕試)에 여러 번 합격하고 정시(庭試)에 두세 번 응시하였으나 끝내 급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강촌에 은거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향친(鄉親)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되었다.

<경모재유고>는 1923년에 후손 권찬용(權燦容, 1854~1923), 권희용(權熙容, 1870~?)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서문은 사촌(沙村) 박규호(朴圭浩, 1850~1930)가 지었다. 발문은 5세손 찬용(燦容)과 종후손(宗後孫) 송산(松山) 권재규(權載奎, 1870~1952)도 지었다.

권1은 시(詩)이고, 권2에는 서(序), 기(記), 제문, 축문, 상량문, 행장, 묘표, 묘갈명, 찬(贊), 그리고 부록(附錄)이 실려 있다.

다음은 공이 안동(安東) 태사묘(太師廟)의 작헌(酌獻) 순서와 묘정비(廟庭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경상도 단성(丹城) 문중의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오고간 여정(旅程)을 기록한 <북주노정기(福州路程記)>를 번역하여 지면관계상 내용을 줄인 것이다.

1766년[영조42년] 8월 13일에 족제(族弟) 권필중(權必忠, 28세, 1740~1794)과 함께 단계(丹溪)를 출발하여 합천(陔川), 성주(星州), 인동(仁洞), 왜관(倭館), 군위(軍威), 의성(義城), 일직(一直) 등을 거쳐 17일 오후에 안동에 도착하니 단성읍(丹城邑)에서 안동부(安東府)까지 거리가 430리였다. 낙동강가에 있는 영호루(映湖樓)에 올라 포은(圃隱), 퇴계(退溪) 등 여러 선생의 시판(詩板)을 살펴본 뒤 태사묘(太師廟)에 이르니, '동종(同宗)의 묘인(廟任)이 바뀌어 종인(宗人) 7,80명이 모두 묘우 아래쪽의 촌사(村舍)에 모여 있다'고 하였다. 묘우 하인의 안내로 전(前) 도유사(都兪司)를 만나 시도기(時到記)를 작성하였다. 오후에 묘정(廟庭)에서 안동부사(安東府使) 김화진(金華鎭, 1728~1803)의 주재로 안동김씨(安東金氏) 측과 함께 작헌(酌獻) 순서, 독축(讀祝) 순서, 및 묘정비(廟庭碑) 등의 일을 논의하였다. 좀처럼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부사(府使)는 '이 일은 중대하므로 부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각각이

경모재유고(敬慕齋遺稿)

단자(單子)를 올려주면 경상감사(慶尙監司)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며 회의를 마쳤다. 다음날 부사는 곧바로 양측의 단자(單子)를 거두어 감영(監營)에 보고하였는데 저쪽의 단자 내용을 베껴 거둬들이었다.

18일, 서문(西門)을 나서서 능동(陵洞)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연미정(燕尾亭)에 들러 두루 구경하였다. 능동에 이르러 잘못 김태사(金太師) 재궁(齋宮)으로 들어갔다 말을 돌려 위로 올라가니 가옥 10여 채의 산촌(山村) 하나가 있었다. 그 마을에서 앞으로 몇 백 걸음을 나아가니 바로 능동(陵洞) 동구(洞口)였다. 곧 말을 내려 나아가니 능소(陵所) 서북쪽에 재궁이 있었는데 매우 높고 컸으며 10여 칸 되는 긴 회랑(回廊)이 있었다. 승도(僧徒) 2,30 명이 누각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침 밤을 먹다가 나와 맞이하며 이르기를 "모두 성(姓)이 권(權)입니다" 하였다. 재실의 남쪽에 3칸 되는 비각(碑閣)이 있었으니 곧 시조(始祖)의 신도비(神道碑)였다. 높이는 2 길이고, 너비는 높이의 절반이었다. 두께도 3,4척(尺)이었으며 비문(碑文)은 탄옹(炭翁) 권시(權士, 1604~1672)가 지은 것이다. 비각 안에는 이전의 비석이 놓여져 있었다. 재승(齋僧)이 이르기를 "판서 권혁(權赫, 1694~1759)이 본(本) 경상도(慶尙道)에 부임해왔을 때 옛 비석이 짧고 작다고 여기고, 다시 동해석(東海石)을 구하여 세우고 본래의 비석은 여기에 두었습니다" 하였다. 비구승(比丘僧) 한 명과 함께 능묘(陵墓)를 배알(拜謁)하니 묘소 앞에는 단갈(短碣), 상석(床石), 석인(石人), 망주(望柱)가 좌우에 뻗 뻗이 서있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앞으로 나아가 참배(瞻拜)하니 추원영묘(追遠永慕)하는 감회가 마음에 왕성하게 일어났다. 서계(西階) 곁에 또 큰 상석(床石) 하나가 있었는데 승려가 이르기를 "향사(享祀) 때 제물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하였다. 묘소 아래 평창군사(平昌郡事) 권옹(權雍, 17세) 부부(夫婦) 묘소가 있고 그 아래에는 또한 감사(監司)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의 묘소가 있었다. 류씨(柳氏)는 비록 권문(權門)의 외손(外孫)이나 같은 기슭에 들어와 묻혔고 이어서 끝까지 안에 장사지낸 것이 지금 91 기(基)에 이른다. 또한 40리(里) 되는 묘산(墓山)의 나무가 모두 류씨의 것이니 통탄할 만한 일이다. 평창공의 후손들이 류씨 집안의 핏을 빠져 장사(葬事)를 금지시키지 못하였으니 어찌 선조(先祖)의 죄인(罪人)을 면할 수 있겠는가? 또 재궁(齋宮)의 문밖에 류씨의 말이 있었는데 권판서(權判書)가 다 른 밭과 바꾸어 몇 묘(畝) 되는 땅을 얻었으니 재승(齋僧)들이 이 때문에 채소를 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능소(陵所)를 물러나 돌아와 재궁(齋宮)에 앉아 옛 문적(文籍)을 찾아보니 거의 수10여 권(卷)에 이르렀다. 제향규례(規例)는 2월의 한식(寒食)과 10월의 중정(中丁)에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를 정하여 제사를 봉행한다고 되어있었다. 관청에서 보조해주는 100명이 봄과 가을에 각각 5전(錢)을 보내오니 한 번의 제수(祭需)는 곧 50금(金)이다. 적(炙)은 소[牛] 한 마리 전체의 다리를 사용하며 꿩과 닭은 10여 마리에 이른다. 그래서 적(炙)을 올릴 때는 힘이 센 젊은이 두 사람이 받들어 올린다. 향사 때는 묘우(廟宇) 안에 보관해둔 옥적(玉笛)을 분다. 호장(戶長)을 맡은 벼슬아치도 제수(祭需)를 마련한다. 재담(齋奮)은 가을에 거두어들인데 풍년이면 8,90석(石)에 이르기도 하며 이것은 제수(祭需)에 넣지 않고 재중(齋中)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재(齋)의 동쪽 방에는 권씨족보(權氏族譜) 목판(木板)을 보관하고 재(齋)의 북쪽에도 제사(齋舍), 정당(正堂), 곡랑(曲廊)이 있는데 이곳은 제사 때 제수를 장만하는 곳이다. 재(齋)의 북쪽 서쪽 배(步) 좁은 데 풍산류씨(豐山柳氏)의 재궁(齋宮)이 있는데 웅위장대(雄偉壯大)하여 대략 오종(吾宗)의 재궁과 같다. 이날 비가 내릴 기미가 많아 능동에서 내려와 곧바로 나오니 금계촌(金溪村)이었다. 안동부(安東府)로 돌아와 저녁식사 후 입재(入齋)하였다.

19일, 도유사(都兪司) 정재전(鄭在田), 재유사(齋有司) 류양원(柳養源), 진사(進士) 김용찬(金龍燾), 그리고 제생(諸生) 수10인의 이름이 시도기(時到記)에 있었다. 제원(諸員)과 함께 각종 문적(文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조의 유물을 살펴보고 옥(玉)피리 소리로 들어보았다. 저녁 식사 후 숭보당(崇報堂)에서 제의(祭儀)를 익혔다.

20일, 제향(祭享)을 봉행(奉行)하고 음복례(飲福禮)가 끝난 후 점심을 먹고 예안(禮安)으로 가서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분강서원(汾江書院)을 구경하고, 이어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방문하여 알묘(謁廟)하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후였다.

21일, 아침에 이복(院僕)의 안내로 도산서당을 둘러보고 천연대(天淵臺)와 운영대(雲影臺)에 올라 탁영담(濯纓潭)을 내려다보며 퇴계선생을 생각하였다. 식사 후에 고포(鼓浦)로 가서 이세헌(李世憲) 등 몇 사람을 만나보고 예안음을 거쳐 이날 저녁에 안동부에 도착하여 숭보당에서 묵었다.

이하 22일에서 25일까지 4일 동안 되돌아오는 여정은 생각난다.

숙종대 <안동권씨문회연도>의 등장인물과 복식

김미선·이은주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안동대학교 명예교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9년(958) 후주(後周) 출신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다. 조선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으로 인해 폐지될 때까지 고려 시대에는 251회, 조선 시대에는 3년마다의 식년시 163회·각종 별시 581회가 행해졌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를 위한 행사로는 방방(放榜), 은영연(恩榮宴), 사은례(謝恩禮), 알성례(謁聖禮), 유가(遊街), 영친의(榮親儀), 문회연(聞喜宴) 등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가문을 넘어 고을 전체의 영광이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과거에 합격한 사실을 널리 알렸다. 또한 급제자의 영광을 선망하게 하여 유생의 학구열을

도려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으며 그 현장을 기록 하로 남기기도 하였다.

그중 <안동권씨문회연도>는 권양(權讓, 1628~1697)은 4명의 아들(彦·····)이 6년 사이(1687~1692)에 모두 대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여 1693년 계유 5월 상순에 배운 연회를 그린 것이다. 서



[그림 2] 녹포 차림의 급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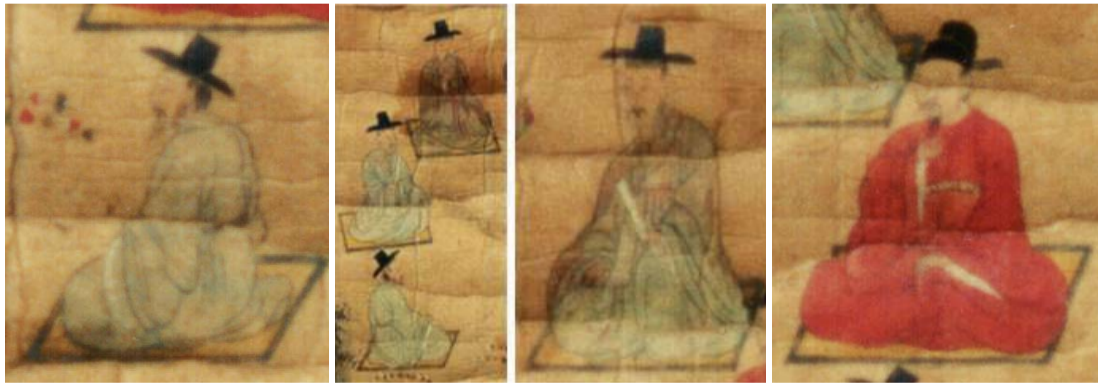
[그림 3] 홍포와 녹포 차림의 급제자 형제들

천군(舒川) 화양면(華陽面) 천동(泉洞) 자락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화사를 불러 그리게 했으니 그 화첩이 <연계첩(聯桂帖)>이다. 당시 4폭을 그려 네 형제에게 주었으나 현재는 한 폭만 남아 있다. <연계첩>에는 당시 잔치와 관련된 사람이 적은 시와 함께 <문회연도>가 수록되어 있다.

문회연은 급제자의 부모와 친지 등이 모여 급제자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사적인 잔치로, '도문연(到門宴)' 즉 '도문잔치'라고도 하였다. 하객으로는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의 현손인 정호(鄭浩, 1648~1736), 동촌(洞村) 송준(宋浚, 1606~1672)의 외손인 민진원(閔鎭遠, 1664~1736), 중추부사(中樞副使) 이광적(李光迪, 1628~1717), 대사간(大司諫) 김시걸(金時傑, 1653~1701) 등 당시의 중요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의미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자를 확인할 수 없어 사진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직접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급제자 '수'는 어사화를 뜻한 복두(幘頭)에 녹포(綠袍)를 입은 모습으로, 부친을 향하여 인사를 올리고 있다[그림 2]. 급제자로서 녹색 공복과 야자대, 흑화를 신고, 홀(笏)을 들었을 것이다. [그림 3]에 보이는 인물은 먼저 합격한 세 형제로, 좌측부터 1687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둘째 아들 성, 168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맏아들 변, 1691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막내아들 엽이다.

'성'과 '변'은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홍포(紅袍)를 입었으며, 이번에 급제한 '엽'은 당하관으로 녹포를 착



[그림 4] 도포를 착용한 급제자 부친 [그림 5] 편복 차림의 하객 [그림 6] 관복 차림의 하객

용하였다.

또한 '성'과 '변'은 금색 야자대(也字帶)로 표현되어 있고, '엽'은 흑자(黑字)대(帶)로 표현되어 있다. 복두에는 과거에 사용하였던 본인의 어사화를 꽂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상태는 좋지 않으나 공복 착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회연도> 속 급제자 부친 권양은 1685년 관직에서 물러나 자체 교육에 힘을 쏟았다. 편복(便服)인 흑림(黑笠), 도포(道袍), 세조대(細條帶) 차림으로 있다. 하객으로 참여한 정철의 현손 정호, 송준의 외손 민진원, 중추부사 이광적, 대사간 김시걸 등은 당시 편복인 흑림, 도포, 세조대를 착용한 모습으로 보인다. 편복에 간혹 부채를 들고 있기도 하다[그림 4·5].

안동권씨의 문회연이 행해진 1693년에는 관원의 집무복으로 흉단령(凶單領)인 시복(時服)을 착용하던 시기이다. 당시 시복은 사모, 흉단령, 품대, 흑화를 말한다. 하객 중에는 심홍색 단령을 착용한 인물[그림 6]이 있는데 공복을 입고 있는 급제자와 그 형제들이 있으니 친척 중 현직에 있는 인물이 시복 흉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 말 당상관은 담홍색 시복을, 당하관은 심

홍색 시복을 착용하였으므로 <문회연도> 속 심홍색 단령을 착용한 인물은 당하관으로 짐작된다.

잔치를 흥겹게 해 줄 광대는 채화와 공작우를 뜻한 황초립을 쓰고 한삼에 중지막, 날짐승 흉배 장식을 한 반수 철릭형 금의(錦衣), 치마, 행진, 흑화 차림에 살바를 들었다. 재인은 광대와 같은 차림새지만, 황초립 대신 상모를 단 갑부(甲夫)를 썼다.

또한, 연회의 가무를 담당하거나 시중을 든 기녀는 얇은머리에 다양한 색상의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고 헤어를 신고 있다. 시중을 들고 있는 어린 동궁(童宮)은 붉은 땀기를 드리우고 녹의(綠衣)를 착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방과 유가 행렬에 치중된 재현행사를 문회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관련된 의례 및 복식 고증,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스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옛 제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국학연구」 53에 실린 「숙종대 <안동권씨문회연도>의 등장인물과 복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1] 안동권씨문회연도